



**"주님 나라 임하소서!"**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어딜 가든 복음이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고, 주의 통치가 임했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 받고, 심지어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구원과 평화(shalom)였습니다 (사 52:7). 이 좋은 소식을 나누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일하시고 이 좋은 소식이 퍼져나가게 하십니다.

성경번역 선교사 재키도 그들 중 하나입니다. 재키 선교사는 마나갈라시 사람들을 섬기기 전까지는 영들의 존재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마나갈라시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들을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에게는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는 게 금기입니다. 재키는 그들의 미신적인 생각에 맞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만큼 자기가 아는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모두 불렀습니다. 바로 그날 밤 그녀는 약한 영들에게 심하게 가위눌렸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겨우 풀려났습니다. 이 경험으로 왜 사람들이 그렇게 영적인 존재들을 무서워하는지 자신도 알게 되었습니다.

마나갈라시 사람들은 단지 이 일뿐 아니라 재키 선교사의 기도의 능력을 인해 그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은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조상들에게 빌고, 청소년들을 영적이 효험이 있는 곳에 보내보는 등, 모든 일을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재키 선교사는 여성들의 성경공부 시간에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그날 밤에 당장 비가 내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키 선교사는 확신이 서질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고, 바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0분 쯤 지나서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루는 재키 선교사와 그녀의 언어조력자 소날루가 함께 빵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여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소날루는 그녀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알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틀이나 걸려 그가 파른 산들을 넘어 재키를 만나 아픈 자기 아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온 것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곧 함께 기도했습니다.

며칠 후 저녁에 낯선 30대 중반의 남자가 찾아 왔습니다. 그리고 짐과 나에게 팔을

벌리고 웃으며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제가 위독했을 때, 우리 엄마가 산을 넘어 찾아왔었지요? 제가 바로 두 분께서 기도해주었던 사람입니다.

"두 분이 기도했던 시간이, 해지기 전 해가 2/3 쯤 갔을 때였습니다(오후 4시 경). 바로 그 때부터 제 몸이 나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일어나서 수건을 들고 씻으러 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 때가 언제인지 압니다. 여기 늪바 마을에 와서 '기도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Holes in the Darkness*, by Jaki Parlier, pp.149-161에서 인용)

회당장 야이로, 수로보니게 여인, 백부장 등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나아오는 자들에게 자비와 능력 베푸시길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복음이 퍼져나가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그리고 또 선교지에 있는 그들을 다스려주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천국이 이뤄지도록!

- 글: 이규준 그림: 김예은

10/15	10/16	10/17	10/18	10/19	10/20	10/21
막 6-7	막 8-10	막 11-12	막 13-14	막 15-16	눅 1-2	눅 3-5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민족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된 말씀과 능력으로 주님 나라를 어서 이뤄주세요.

## Read the Bible, Bless the Bibleless

Oct 15	Oct 16	Oct 17	Oct 18	Oct 19	Oct 20	Oct 21
Mar 6-7	Mar 8-10	Mar 11-12	Mar 13-14	Mar 15-16	Luk 1-2	Luk 3-5



### "God's Kingdom come!"

words by Gyoojun Lee & illustration by Yaeun Kim

The Good News spreads out. Mark said it was always like that. Wherever Jesus went, God's Kingdom was proclaimed; His reign prevailed! Demons were cast out, the sick were healed, and even the dead rose again! This was the salvation and peace (*shalom*) fulfilled as the prophet Isaiah had foretold (Isaiah 52:7). Wherever God's people go to share this good news, God works through them and this good news spreads out.

Jaki was one of them. She was not well aware of the existence of spirits until she served the Managalasi people. They were scared to death by evil spirits. It was taboo for them to call out the names of the deceased. Jaki wanted to confront this superstition. She called the names of the dead as many as she could remember. That night she was attacked by evil spirits. In Jesus' name, she was able to overcome them. But with this experience, she became to understand why the Managalasi people were so afraid of evil spirits.

The Managalasi people acknowledged her as God's woman, not only with this experience but also with the power of her prayer. Once there was a severe drought. The people prayed to their ancestors. Teens were sent to magic places where they believe spiritual power working. They did everything they could but they did not get rain. Jaki was asked to pray for rain at the women's Bible study meeting. They even told her that they needed rain that night. She was not sure but God gave her peace. She prayed and they were able to hear rain drops in twenty minutes!

One day, Jaki was with Sonalu, her language helper and dear friend, making bread together. A woman came into the kitchen. Sonalu recognized her and was amazed as she knew from how far away the lady had come from. The lady had heard the good news and had traveled over steep mountain hills for two days to ask Jaki to pray for her dying son. The three ladies prayed right away.

One evening a stranger, about thirty-five years

old, came in. He walked up to Jim and me with his hand out-stretched. "When I was very sick, my mother walked over the mountains," he exclaimed with a smile. "I'm the one you prayed for."

"The sun was a third of the way in the sky before setting (about 4 pm) when you prayed. That was the exact time I got better. Many people saw me get up, take my towel and go wash. They will tell you it was at the time you prayed. I just came to Numba to say 'Thank you for praying for me.'" (pp. 149-160, *Poking Holes in the Darkness*, by Jaki Parlier)

Jairus, a Syrophenician woman, a centurion, and many others came to Jesus for their beloved ones. And Jesus is not holding his mercy and power for those who come to Him with faith! No one can stop the spreading of the good news.

Let's expect and pray for God's reign on us, and our brothers and sisters that His Kingdom comes in all nations!



**Week 42 Prayer:** Lord, we thank You for having mercy on our weakness and healing us!! For the nations still in darkness, please hasten to establish Your kingdom through Your Word and power in their own languages.

Translating Scripture, Transforming Lives